

자동차의 다양한 기능 활용해 연비 향상 운전하기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연비에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점점 진화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 중 연비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sfdirect)가 자동차의 주요 기능을 활용해 연비 높이는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 자동차 연비란?

자동차의 연비는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구매를 위한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호한다.

연비는 자동차가 연료로 얼마를 갈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갤런으로 운행할 수 있는 공인된 거리를 MPG(Miles Per Gallon)으로 표기한다. 즉, 40 MPG라면 1갤런의 연료로 40마일을 주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이 공인연비는 실제 주행된 연비가 아닌 카본 밸런스(Carbon-Balance) 법을 따라 측정되고 있다. 말 그대로 모의 주행을 통해 배출되는 탄소 성분을 분석해 연비를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주행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 연비는 주행 환경, 운전습관, 자동차의 상태 등에 따라 공인연비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 창문을 열고 vs 에어컨 켜고



에어컨을 작동하면 컴프레서(압축기)라는 장치가 공기를 차갑게 만든다. 그런데 이 컴프레서는 엔진의 힘으로 작동돼 에어컨을 가동하면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연료를 아끼려고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도 있다. 반면 창문을 열고 주행하면 자동차가 바람의 저항을 더

받게 되고 이에 연비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다.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실제로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한 결과, 저속으로 운전할 때는 자동차의 창문을 여는 것이, 고속으로 운전할 때에는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연비 절감에 좋았다. 물론 이 두 가지 경우도 주행 속도 및 주행 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연비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가 근소해 어느 것이 더 연비를 생각하는 운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런데 어떻게 운전하든 연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운전하는 게 더 좋을까?

전문가들은 도로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고 운전하는 것이 운전자의 건강에 좋다고 조언한다. 이때 내부 순환 모드를 작동시키면 시원한 공기가 자동차 실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된다.

■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최근에는 많은 차량에 크루즈 컨트롤 (Cruise Control) 기능이 장착돼 생산된다.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엑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셀 페달링이 줄어들어 급가속, 급제동을 방지할 수 있어 연비 상승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뒤의 차간거리까지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통행이 원활한 도로를 주행 중이라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용해 더 경제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크루즈 컨트롤도 만능은 아니다. 운전 시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환경도 있다. 특히 경사가 있는 길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자동차는 속도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작동해 연비가 오히려 나빠지게 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도로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사가 급한 오르막, 내리막길 ▶ 정체된 도로 ▶ 급 커브길 ▶비, 눈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 ▶기상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안개, 눈, 비, 모래바람 등) ▶바람이 많이 부는 도로 ▶차량 구조 변경으로 차량의 전후방 수평이 출고상태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감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액티브 에코모드를 사용하면



자동차에는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Mode)가 존재합니다. 그중 연비에 도움이 되는 모드가 있다. 바로 에코 모드이다. 브랜드마다 부르는 호칭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액티브 에코' 모드로 많이 지칭된다.

액티브 에코 상태는 차량의 출력을 제어하여 차체가 연비 운전으로 제어되게 만드는 드라이브 모드이다. 엔진제어를 통해 엑셀 페달을 운전자가 급하게 밟더라도 급가속이 되지 않고 서서히 가속하여 연료 소모를 줄여 준다. 엔진 토크 상승을 제한하고 낮은 RPM을 유지하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차종에 따라서는 최고 속도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스포츠 모드는 엑셀 페달링에 민감하게 반응해 연비의 효율이 낮다. 하지만 순간 가속도가 필요할 때, 연료 소모와 상관 없이 역동적인 운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운전의 즐거움을 높여 준다.

사진=shutterstock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Reverse Mortgage • Line of Credit - Low Cost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No Income Program - Credit 640부터, 20% down 가능
- Conventional Loan • VA/FHA Loan • 재융자
-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Sean Kim
Senior Loan Agent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